

완도군의회에서도 지난해 임시회에서 완도-제주간 해상경제에 대한 권한쟁의에 대하여 5분자유발언과 구정질문을 통해서 군민의 힘을 결집시키고자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완도군의회 주도로 전남시군의장단 협의회에 공동성명서 채택을 통해 각 시군과 함께 공동의 노력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우리의 결의를 굳게 다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우리는 완도의 바다와 영토를 지키기 위해 힘과 지혜를 모아 이 문제를 적극 헤쳐 나가야겠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합시다! 감사합니다!



군민이 신뢰하는 든든한 의회

2024. 08. 23.(금) 14:30

문화예술의전당

## 【 축 사 】

### 바다지킴이범군민대책위 출범식 및 결의대회



# 완 도 군 의 회

## 바다지킴이범군민대책위 출범식 및 결의대회

2024. 08. 23.(금) 14:30 / 문화예술의전당

친애하는 완도군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완도군의회 **김양훈** 의장입니다.

오늘 우리 완도의 소중한 바다와 영토를 지키기 위해 **바다지킴이범군민대책위원회가 출범**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 참석하신 내빈분들께서 감사드리며 앞에서 미리 소개하여 일일이 말씀드리지 못한 점, 널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친애하는 완도군민 여러분! 그리고 수산인 여러분!

우리의 바다는 단순한 자연의 일부가 아닙니다. 우리 선조들이 가꾸고 지켜온 삶의 터전이며,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귀중한 유산입니다. 이 바다를 지키는 일은 현재를 사는 우리들의 중요한 책임이며, 미래 세대를 위해 꼭 수행해야 할 사명입니다.

최근, 제주도에서 우리의 바다를 두고 다시금 논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권한쟁의 대상이 되는 쟁점 해역이 완도군과 제주도의 경계이면서 전라남도과 제주도의 경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완도군만이 아닌 도를 포함한 해남, 진도, 여수 등 바다를 인접하고 있는 모든 시군과 협력하고 공동으로 헤쳐나가야 합니다.